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예술대학 의상디자인학과
조교수 김인경

目 次

I. 서 론	3. 소재
II.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방향	4. 문양과 장식
III.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	IV.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디자인의 복식미 분석
1. 형태	참고문헌
2. 색채	ABSTRACT

I. 서 론

복식전통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 디자인을 모색하고자 하는 양상은 1990년대에 들어 파리 컬렉션과 같은 국제무대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그동안 한국적 디자인은 '전통성'과 '현대화'의 충돌같은 갈등적 요인에서 이 두 과제를 어떻게 서로 수용·융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이 신우, 이영희, 전태옥 등과 같은 디자이너들이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국제적인 컬렉션에 참가하면서 한국적 디자인의 고유성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모두 갖추어야 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90년대에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가 열림으로써 우리의 패션 디자인은 이제까지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디자인 의식을 합리적, 논리적 사고로 전환시켜 현대의 시점에서 '한국성'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¹⁾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90년대 이후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파리 컬렉션에 출품한 한국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한국적 디자인에 있어서 전통성과 현대화가 어떻게 수용·융화되면서 현대한국 복식의 새로운 전형(paradigm)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한국디자이너들의 디자인을 아무런 전제나 선입감없이

1) 김인경,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9권 제3호 5월, 1995), p.538~540.

"현대에 있어서 '한국적'이라는 개념은 옛것의 형식적인 재현이나 모방이 아니라 순수한 한국의 정신문화전통과 현대화 요구의 충돌을 직접 체험한 역사적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또한 인류의 문화현상이나 민족성 등이 고정 불변하는 실체라기 보다는 다원적인 여러 원리나 법칙에 의해서 변모되듯이 한국적이라는 개념 또한 한 두마디의 어휘로 정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가능한한 시대별, 지역별, 분야별 등으로 나누어 시대의 변천에 따른 각 양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규명과 정의가 시도되어야 한다."

연역법적 분석²⁾을 시도하여 그 특징을 정확히 가려내고 이를 체계화시킨다.

연구내용은 첫째,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방향으로 우리의 고유양식을 고수하면서 전통한복의 기능성을 보완하려는 경향, 전통적인 요소를 응용하여 한국적 디자인의 고유성을 강조하려는 경향, 한국적 디자인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조화시켜 현대의 시점에서 복식전통을 수용하여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려는 경향의 세 가지 방향에서 고찰한다. 둘째,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ELLE(KOREA)'와 'FASHION TODAY'에 실린 이 신우, 이 영희, 진 태옥 등의 세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형태, 색채, 소재, 문양과 장식 등과 같은 복식의 시각적 특성에 의한 조형적 특징을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서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복식미의 특징을 분석한다.

II.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방향

개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여러분야에서 전통을 되찾자는 주체의식과 함께 한국적인 미를 찾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 디자인에도 나타나 '한국적 디자인'을 모색하고자 하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첫째, 우리의 고유양식을 고수하면서 전통한복의 기능성을 보완하려는 경향 둘째, 전통적인 요소를 응용하여 한국적 디자인의 고유성을 강조하려는 경향 셋째, 한국적 디자인의 고유성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한국복식미의 보편성을 추구하여 현대의 시점에서 복식전통을 수용하여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려는 경향의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 중 첫 번째 경우는 개량한복으로 한복 디자이너인 이 영희에 의해 세계무대에 선보이고 있다. 우리의 역사와 정신이 배어있는 단순한 선을 '한복(HAN BOK)'이라고 명명한 그의 의상들은 현대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여 코디네이션(coordination) 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어 개량한복이 현대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근래에 들어 개량한복이 생활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현상과 함께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는 전통적 요소 즉, 저고리와 치마의 형태나 선, 전통문양, 소재 등을 응용하여 서구복식양식과 절충한 형태로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의 패션 디자이너 고시노 히로코가 "동양적인 디자인만이 세계의 주목을 끌 수 있다."³⁾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서양복식과는 다른 한국복식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2) 문명대, 「한국미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 서울, 1984), p.9.

"우리나라 미술의 특징은 대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직관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대전체, 즉 원리를 세우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비애미, 무기교의 기교, 자연성, 자연주의 등이 한국미의 특징이라는 견해는 모두 각 학자의 직관력에 의하여 추출한 이론인데 그 뿐리는 한 사람의 견해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직관력으로 파악한 원리에서 전 시대에 걸친 모든 한국의 미술을 귀납법적으로 해석한 신학적인 견해가 한국미술의 가장 합당한 이론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귀납법적인 견해는 그 바탕이 허구일 경우 완전한 오류가 되기 쉽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귀납법적인 추구보다는 연역법적으로 해석해야 어느정도 그 실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듯이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특성 또한 연역법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3) 고시노 히로코, 「멋」, 7월, 1987, p.85

"패션은 유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럽의 패션은 뿌리깊은 힘을 갖고 있다. 동양사람이 그들에게 대항하려면 철저히 동양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독특한 민족성을 작품에 함축시켜야 유럽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의 가시적 실체(선, 색, 주제 등)를 끄집어 내어 현대의 상에 대입·절충할 경우 ④ 서양복식의 기본구조와 고유양식의 재현사이에 인지부조화 현상⁵⁾이 일어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서구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동양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 사이의 혼돈, 즉 동양적인 것 안에 내포된 한국적인 것이냐 한국적인 바탕위에서의 동양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조형미술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들의 문화의식, 즉 일본의식을 바탕으로 동양적인 것을 소화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적 디자인은 옛 것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옛 양식이 현재 인간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시대상에 어울리게 재정립됨으로써 새로운 양식으로 탄생되는 것⁶⁾이라고 전제할 때 우리도 한국적 조형의식과 문화의식의 바탕위에서 동양적, 서구적인 것을 소화하여 표현하는 것 이 마땅한 이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⁷⁾

4) 1)의 글, p154

5) 김 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 서울, 1991), p60-p64

“페스팅거(Festinger)는, 사람들은 내면화된 개념과 태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표현과 행동에 있어서 그러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내면화된 가치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인지부조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6) 채 금석, 「현대복식미학」, (도서출판 경춘사 : 서울, 1995), p.123.

7) 5)의 글, p.64

8) 주거의 경우, 우리의 전통적인 온돌시스템인 아궁이에 불을 때는 가시적 실체는 현대화에 의해 사라졌으나 온돌이라는 이미지는 현대의 아파트에 완벽한 내재적 요소로 작용해서 서구적인 아파트 형태와 융합하여 한국적인 아파트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패션에 있어서 내재적 요소를 적절하게 찾아내서 현대의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낸 예로 일본 디자이너들의 레이어드 룩(layered look)을 들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의 복식을 비교할 때, 서양의 복식은 고딕 시대이래로 신체의 선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의 다양성과 조형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동양의 복식은 옷을 몸에 꼭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신체의 선을 나타내지 않도록 여유있는 형태 속에서 둘러 입거나 여러겹 겹쳐 입는 특징이 있다.

1980년대에 일본 디자이너들이 파리 컬렉션에서 보여준 레이어드 룩(layered look)과 후리 싸이즈(free size)의 의상은 몸에 감싸 여러겹을 겹쳐 입은 양식이다. 즉, 몸을 감싸기 때문에 누가 입더라도 어느정도는 다 맞을 수 있는 넉넉한 감각을 현대적 스타일로 표현한 것으로, 전세계에 충격을 주며 유행되어 나갔으며, 서구인들에게는 패션의 새로운 이해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그러한 복식은 외형적 측면에서는 현대적인 서양복식이었지만 그 표현하는 방법과 정신적(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동양적이었기 때문이었다.

9) 김 인경, 「현대 복식조형의 한국적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식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89), p.13.

10) 이 경자,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 서울, 1983), p.346.

마지막으로 현대의 시점에서 복식전통을 수용하여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려는 경향은 차츰 전통적인 고유양식의 재현에서 벗어나 형태는 서양복식이지만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적 모티브는 보다 근원적인 내재적 요소(內在的要素)로 바뀌어 서구적 형태와 융합되는 것이다.⁸⁾

그러므로 한국적 디자인에 있어서 전통성과 현대화를 따로 구분짓는 이분적 사고보다는 현대화는 곧 서구화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문화적 유산, 즉 우리의 체질을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⁹⁾ 우리 생활과 의식에 맞는 우리다운 복식의 정립¹⁰⁾이 필요하다.

III.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미적 특징

한복 디자이너 이 영희가 93/94 A/W 파리 컬

렉션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전 태옥, 이 신우, 홍미화, 장 광효 등의 디자이너들이 매시즌 파리 컬렉션에 참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적 디자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를 중심으로 꾸준히 몇몇 디자이너들에 의해 발 표되어 왔으나 이제는 동경, 파리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우리 디자인의 세계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특징을 복식의 시각적 특성에 따른 형태·색채·소재·문양과 장식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으로써 전통성과 현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용·융화되면서 현대 한국복식의 새로운 전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한다.

1. 형태

형태는 복식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우리의 감각 중에서 시각과 촉각에 의해 지각되기 때문에, 색과 함께 대상의 감각적 경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¹¹⁾

그동안 한국적 디자인의 형태적 특징은 전통복식의 실루엣이나 저고리의 짧은 선, 저고리의 배래선, 당의선 등을 이용한 전통적 요소의 재현적 측면이 강하였으나, 파리 컬렉션에 한국 디자이너들이 진출하면서 한국복식의 고유성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한국복식미의 보편성과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한복 디자이너인 이 영희는 ‘흔이 깃든 옷’이라는 컨셉으로 ‘한복’의 형태에서 동정과 깃을 생략하고 소매통을 좁게하여 여성스럽게 표현한 현대식 한복(혹은 웨딩 드레스)과 전통적인 해

어스타일과 더불어 전통치마와 자켓의 코디네이트, 두루마기의 자유분방한 라인이 엿보이는 코트 등에서 우리의 고유복식양식을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거의 변형없이 재구성함으로써 파리 컬렉션에서 한국패션의 이미지 구축을 강조하였다. (3-1) (3-2)(3-3)

이 외에, 한복의 전통적인 라인을 구사하면서 몸에 붙는 륙을 함께 보여주어 풍성한 한복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가슴에 걸쳤던 한복치마를 허리로 이동하여 비례에 변화를 주는 동시에 실용성을 가미하기도 하였다. (3-4)(3-5) 이러한 그의 형태적 특징은 한복의 서구화가 아니라 한복의 재창조로 우리옷의 미래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세계 속에 우리옷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현지 언론인 「르 피가로」지에 ‘한국 선두에 서다. 조용한 아침의 겨울, 한국고전의 상의 여사제인 이 영희와 함께하다. 운동 부드러움과 그리고 테크닉, 가장 아름다운 실크와 삼베 그리고 면과 모시가 1430년 이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되었으며, 장과(漿果)¹³⁾와 식물의 뿌리를 이용하여 염색된 이 옷들은 중국의 남성 작업복을 연상케 한다. 지금 현재까지 최고다.¹⁴⁾라고 평가한 기사에서 그 객관적인 시각을 파악할 수 있다.

오랫동안 한국적 디자인을 모색해 온 디자이너 이 신우의 초기 의상은 한국의 전통적 요소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파리 컬렉션에서는 한복의 디테일을 테마로 삼기보다 한국적 이미지를 자신의 표현 양식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¹⁵⁾ ‘한국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세계적’, ‘문화적’이라는 의미에서 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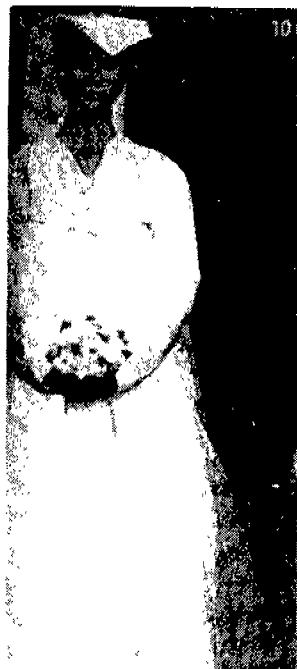
11) 민 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 서울, 1995), p.172.

12) 「한국의 미」, 1994, 9월, p.32.

13) 장과 : 과실의 한 가지. 살과 물이 많고 속에 씨가 있음.

14) 「FASHION TODAY」, 1993, 5월

15) 「멋」, 1989, p.216.



(3-1) 이영희, 1995, 「ELLE」



(3-2) 이영희, 1996, 「ELLE」



(3-3) 이영희, 1996, 「ELLE」



(3-4) 이영희, 1995, 「E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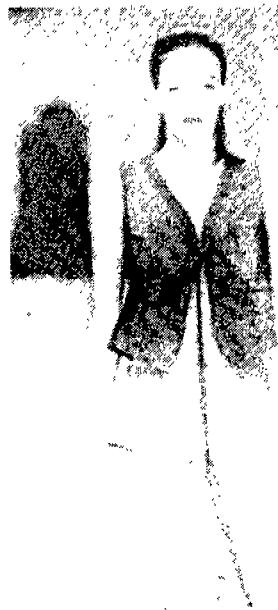
(3-5) 이영희, 1995, 「E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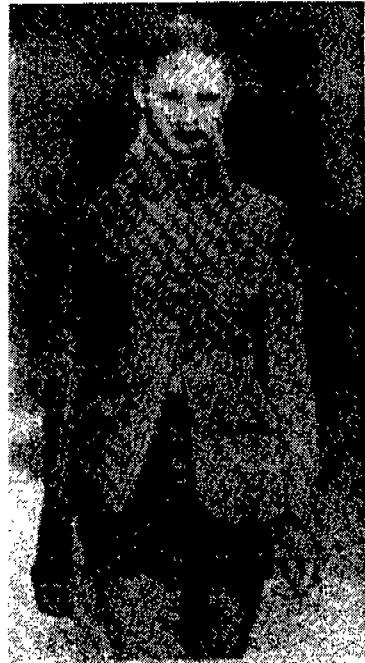
(3-6) 이신우, 1995, 「FASHION TODAY」



(3-7) 이신우, 1995,
『FASHION TODAY』



(3-8) 진태옥, 1995,『FASHION TODAY』



(3-9) 진태옥, 1995,『FASHION TODAY』

디자인을 해야할 것¹⁶⁾이라고 주장했듯이 한국복식의 고유성 보다는 보편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형태적 특징은 하나의 의상을 가지고 뒤집어 입거나 겹쳐 입을 수도 있고, 치마의 경우 자연스럽게 그대로 입든지 치마자락을 들려서 여며 입을 수도 있는 가변적(可變的) 실루엣을 다양하게 연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치마의 감싸는 양식, 감싸는 치마깃의 고저 또는 감싸조이는 정도에 따라 서른 여섯가지의 멋¹⁷⁾을 낼 수 있었던 한복치마의 착장방법에 따른 형태의 가변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3-6)(3-7)

디자이너 이영희, 이신우에 이어서 94'S/S 파리 컬렉션에 참가한 이후 유일하게 여성복·남성복을 매 시즌마다 파리 컬렉션에 발표하고 있는

디자이너 진태옥은 한국적 디자인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한국적인 것을 직접 표현하기보다 그 정신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¹⁸⁾

따라서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그의 한국적 디자인의 형태적 특징은 전통복식의 형태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대신 단순한 라인 속에 곡선미와 손자수로 한국적 감성을 강조하였다. (3-8) 또한 투피스의 웨스커트의 겹쳐진 부분은 한복치마말기에서 변형되었으나 거의 한복적 이미지는 사라지고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9)

이 외에도 홍미화는 한복의 실루엣을 기본으로 하면서 세계 여러나라의 전통적인 특징을 접목시킨 디자인 등으로 파리 컬렉션을 구성하였으며, 남성복 디자이너인 장광호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16) 「ELLE」, '디자인을 선보이보다 한국의 이미지를 심자', 1993 p.145.

17) 이규태, 「우리의 옷 이야기」, (기린원 : 서울, 1991), p.249.

18) 16)의 글, p.145.

라인, 볼륨감 등을 한국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에서 점점 인터내셔널한 형태로 의상을 표현하였다.

2. 색채

국내를 중심으로 한국적 디자인을 표현할 때의 형적 조형요소 중 색이 가장 적은 예로 나타났던 데¹⁹⁾ 비해, 파리 컬렉션에서 색채는 소재와 어우러져 한국적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있어 중점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 영희의 의상은 색채와 소재가 갖는 비중이 매우 커서 재래식 염색방법을 통한 자연에서부터 얻어낸 화이트, 즉 초크 화이트(분필색같은), 샌드 화이트, 봄철의 산사나무에서 착안한 화이트들과 회색, 갑색, 하늘색, 북청색 등으로 햇볕에서는 가벼워지고 그늘에서는 더욱 깊어지는 미묘한 색갈로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잉크빛 블루는 매 시즌마다 개최되는 소재 및 색상의 경향을 발표하는 프리미에르 비지옹(Première Vision)에서 컬러선정위원으로 선정될 만큼 인정을 받았다.

도)했던 인지부조화 현상을 극복하여 형태는 서구 복식으로 통일하되 소재와 색에서 한국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현대에서도 자주 쓰인 흰색은 우리 민족이 애용한 가공하지 않은 소색(素色)의 백색으로 소색의 백의는 천연스러움, 인공이 배제된 자연스러움을 표현하였다.²⁰⁾

3. 소재

전통적인 한국복식의 소재는 주로 견, 마, 면이 사용되었다. 소재가 지니고 있는 미적 특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조직적인 특징과 더불어 소재의

분위기가 한국복식의 형태와 조화되어 나타나는 미적 특징을 생각할 수 있다.²¹⁾

파리 컬렉션에서도 전통적 천연소재인 견, 마, 면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이 영희는 색과 함께 소재개발에 주력하여 다양한 두께로 직접 제작하여 거친듯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가공된 수직 실크를 비롯하여 명주, 자미사, 웃동, 양단 등 광택이 강한 겨울용 한복소재를 강조하고 있다. 을 또한 견보교직을 시도함으로써 거친듯한 자연미와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천연소재 뿐 아니라 특수 필름코팅처리하여 천연섬유의 질감을 살린 폴리에스테르로 모던함을 표현하였다.

이 영희 의상과 대조적으로 전위적인 패션을 표현한 이 신우는 비닐, 코팅한 종이, 폴리우레탄 등의 신소재와 니트, 저지, 소창, 실크, 벨벳, 광택소재 등의 천연섬유를 사용하였다.

그는 이러한 소재들로 레이스원단을 조각조각이어서 핸드메이드한 속재킷과 비닐소재의 미니스커트안에 노방스커트를 패티코트처럼 착용하는 등 상반된 소재들을 상의와 하의에 함께 조화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현대미를 추구하였다.

또한, 진 태옥은 엄격하면서도 트렌디한 진 태옥 특유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전통적 한국소재보다는 메탈의 광택감, 새틴, 벨벳, 불투명한 비스코스, 코팅레이온 등을 주 소재로 사용하였다.

이 외에 거즈와 노방 등이 흥 미화에 의해 사용되었고, 장 광효는 가볍고, 소프트함, 편안함, 드라이함을 강조하기 위해 면, 린넨, 투사비단 등 손처리된 것과 빛이 들어 올 수 있는 성근 조직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4. 문양과 장식

19) 1)의 글, p.542.

20) 금 기숙,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 서울, 1994), p.59.

21) 1)의 글, 재인용, p.543.



(3-10) 이영희, 1995, 「ELLE」



(3-11) 이신우, 1995, 「ELLE」



(3-12) 진태욱, 1996, 「ELLE」

W. 버링거가 장식조형은 시대나 민족의 조형양식의 특질을 제일 명백히 보이는 전형이라고 지적했듯이²²⁾ 파리 컬렉션에서도 문양은 한국적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쓰였다.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실크에 누빔처리한 것으로 이 영희는 전통적인 우리옷의 기법인 손누비와 상침법을 사용하여 실루엣은 서구형태일지라도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이 신우는 직선적인 누빔을 사용하여 현대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3-10)(3-11)

또한 진 태욱은 서구적 형태의 실루엣에 전통민화나 풍속화의 미인도와 같은 문양을 삽입함으로써 고전과 현대미의 조화를 시도하였다. (3-12) (3-13)

이 신우 역시 모더니티, 퓨처리즘이 강조되는

현대적 의상에 용을 형상화한 문양을 프린트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3-14)

마지막으로 단조로운 의복 구성에 엑센트 역할을 하는 장식적 요소로 한국적 디자인을 표현한 것은 홍 미화의 경우 변형하지 않는 전통적 형태, 즉 패랭이 노리개 등을 의상에 사용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이 신우, 진 태욱 등은 현대적인 모자로 현대적인 미를 표현하거나 단순미를 강조하기 위해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이 영희는 평범한 의상에 양단 스카프로 옷고름 매듯이 장식을 함으로써 한국적 이미지를 무리없이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장신구 자체 하나만으로도 조형성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나름대로의 미적 특징을 지닐 수 있다는 것²³⁾을 보여주고 있다. (3-15)

22) 조 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 서울, 1989), p.153.

23) 김 영자,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 서울, 1992), p.157.



(3-13) 진태옥, 1996, 「ELLE」



(3-14) 이신우, 1996, 「ELLE」



(3-15) 이영희, 1995, 「ELLE」

IV.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복식미 분석

파리 컬렉션에 진출하였던 한국 디자이너 중에서 한복 디자이너인 이 영희의 의상이 파리 언론과 현지 시각에 의해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은 ‘한국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再考)하게 한다.

더우기 근래에 들어 그동안 특수복으로 착용되었던 ‘한복’이 기능성을 보완해 생활복으로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성’의 모색은 전통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하되 전통의 역사성과 창조성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새롭게 창조되면서 계승되어야 한다²⁴⁾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역사적 체험을 통한 한국적 디자인의 정립은 1980년대 국내를 중심으로 한 한

국적 디자인의 전개 양상과 1990년대 이후의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디자인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복식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적 패션 디자인은 전통적 고유양식의 재현에서 벗어나 점차 형태는 서구복식이지만 보다 내재적인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성과 현대화는 우선 각각 그 두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여 우리 자신의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통성과 현대적 요소를 융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파리 컬렉션에 나타나는 그러한 구체적인 예로는 이 영희의 한복라인의 의상 아이템들이 크

²⁴⁾ 소홍렬, 「한국성 모색을 위한 철학적 고려」, 『공간』 6월호 : 서울, 1987), p.37.

로스 코디네이션(cross coordination)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단순히 과거 전통복식의 재현이라기 보다는 현대 감각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라던지, 이 신우의 형태의 가변성을 살린 치마의 형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상들은 기존의 한국적 디자인에서 보이던 서구복식 실루엣에 전통양식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대입·결충(그 반대의 경우도)했던 인지부조화 현상을 극복하여 형태는 서구복식으로 통일하되 소재와 색에서 한국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자인 요소들의 조작에 의해 한국적 디자인은 만족스럽고 의미있는 전체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은 전체를 부분보다 더 의미 있게 한다.²⁵⁾

따라서 파리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한국적 디자인의 특성은 한국패션의 이미지 구축을 강조할 경우에는 전통적 고유형태의 실루엣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는 대부분 서구복식형태에 한국적인 소재와 색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서로 성격이 다른 이질적인 전통성과 현대화를 각 요소별로 적절하게 배합하여 한국적 디자인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보다 유연하게 융합시켜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파리 컬렉션에 나타나는 한국적 디자인의 균형, 비례, 리듬감 등의 조형적 특징은 좌우비대칭 이거나 가변적 형태로 대부분 전체 혹은 일부분에 풍성한 불亂감을 주어 율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곡선은 기하학적인 완전한 곡선이 아니고 약간 불규칙적이면서 신체의 곡선을 강조하는 만곡선(restrained carve)으로 부드럽고 완만하며,

유연하지만 억제된, 우아한, 여성다운, 수동적인, 미묘한, 느슨한 성격을 띤다.²⁶⁾ 이러한 특징은 웃의 끈을 맬 때도 길고 느슨하게 매어 움직일 때 휘날리는 선 또한 만곡선으로 보여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러한 자연스러운 곡선을 선호하는 한국적 디자인 특성은 직선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일본적인 패션디자인²⁷⁾과 대조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국제무대에 선보인 바 있는 일본패션의 특성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한국적 곡선을 이용한 한국 고유의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1980년대 국내에서 표현된 한국적 디자인이 작품성이 강한 경향으로 홀려 생활복으로서의 기능성보다는 미적 표현에 더 주력했었다면²⁸⁾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디자인은 이미지 중심의 컬렉션보다 상품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한국적인 것을 세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마인드가 세계화되어야 한다.²⁹⁾

V. 결 론

1990년대 이후 파리 컬렉션에 한국디자이너들이 진출하면서 한국적 디자인의 전통성과 현대화가 어떻게 수용·융화되면서 현대한국복식의 새로운 전형(paradigm)이 가능한가를 모색하고자 하는 본 논문은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방향을 우리의 고유양식을 고수하면서 전통한복의 기능성을 보완하려는 경향과, 전통적인 요소를 융용하여 한국적 디자인의 고유성을 강조하려는 경향과 현

25) 마린린 혼, 루이스 구렐 저, 이 화연, 민 동원, 손 미영 역, 「제2의 피부」, (도서출판 까치 : 서울, 1988), p.352.

26) Marian L. Dais 저 이 화연, 손 미영, 노 희숙 역, 「복식의 시작디자인」, (경춘사 : 서울, 1990), p.66

27) 이 근정,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91), p.28.

28) 김 인경, 「전통복식조형미의 현대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학과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1996), p.139.

29) FASHION TODAY, 「디자이너 마인드의 세계화, 그것이 파리진출의 열쇠」, 1993년 5월, p.29.

대의 시점에서 복식전통을 수용하여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려는 경향의 세가지 방향으로 살펴본 뒤 파리컬렉션에 출품한 디자이너 이영희, 이신우, 진태옥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고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디자인의 특징은 전통적 고유양식을 서구적 형태에 대입·절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디자인 요소간에 조화·융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즉, 형태는 서구 스타일이지만 소재와 색에 한국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기존의 한국적 디자인에서 보여졌던 형태간의 인지부조화 현상을 해소시켰다.

둘째,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이영희의 '한복' (HAN BOK)이라고 명명한 의상들이 현대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여 코디네이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비대칭적 균형감, 착용법에 의한 형태의 가변성으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리듬감을 표현하고 있는 의상과 같은 일련의 작업은 한복의 서구화가 아니라 한복의 재창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자신의 복식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의 시점에서 전통성과 현대화가 서로 수용·융합되면서 현대 한국패션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파리 컬렉션에 표현된 한국적 디자인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감각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 사고와 동시에 세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서울, 1994).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 서울, 1991).
-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 서울, 1992).
-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 서울, 1995).
- 문명대, 「한국 미술의 미의식」, (정신문화연구원 : 서울, 1984).

• 이경자,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 서울, 1983).

-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 서울, 1989).
- Marian L. Davis 저,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 역, 「복식의 시각 디자인」, (경춘사 : 서울, 1990).
- Marilyn J. Horn, Lois M. Gurel 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제 2의 피부」, (도서출판 까치 : 서울, 1988).

〈논문 및 잡지〉

- 김인경, 「현대복식조형의 한국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식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89).
- 김인경,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 학회지 제19권 제3호 5월, 1995).
- 김인경, 「전통복식조형미의 현대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학과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1995).
- 이근정,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91).
- 소홍렬, 「한국성 모색을 위한 철학적 고려」, (공간 6월호, 1987). 멋, 7월, 1987.
- 멋, 7월. 1987.
- 한국의 미, 9월. 1994.
- FASHION TODAY
- ELLE

ABSTRACT

Research for Characteristics of Korean Fashion Design Showing at Paris Collection

This research wants to find the possibility for new paradigm of modern Korean dress by accepting and harmonizing the tradition and the modernization of Korean design when Kor-

ean designers enter into Paris collection and express identity of Korean fashion, and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esign with concentrating on the works of Young-hee Lee, Shin-woo Lee, Tae-ok Jin who have exhibited their works at Paris Collection.

For one of the above characteristics Young-hee Lee, a designer of Korean clothes, emphasized to build up image of Korean fashion as a form of Korea without any modification, and expressed universal western-style silhouette as Korean image by using traditional technique including dyeing and silk made by herself, quilt and decorative saddle stitching. In the aspect that a chain of work has made not by wes-

ternization of Korean clothes but by re-creation of Korean clothes, it suggested a new way of modern Korean fashion with harmonizing tradition with modernization as of present based on our own dress tradition and have got good reputation from the press and the field in Paris as well.

Therefore the tradition and the modernization of Korean design is not confronted or compromised in form, color, material, motif and decoration but has to be harmonized and reconciled independently in order that visual characteristics of dress can be made as one of Korean image.